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 여성해방의비극

엠마골드만

엠마골드만  
여성해방의비극  
1906년

[kr.theanarchistlibrary.org](http://kr.theanarchistlibrary.org)

1906년

# 차례

관건은 균등화가 아닌, 평화와 조화 . . . . .	3
행복의 근원을 빼앗아간 해방? . . . . .	4
사랑을 두려워할 때 해방은 없다 . . . . .	5
여성의 자유와 남성의 자유, 깊은 연관성 . . . . .	5
향유하는 만큼만 자유롭다 . . . . .	6
적대적이 원론을 극복해야 완성된다 . . . . .	7

그러나 나는 솔직히 그 여의사가 꿈꾸는 돌벽과 돌마루처럼 차디찬 남녀 간의, 이 ‘새로운 아름다운 관계’를 전혀 위대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이런 단정함과 질서 정연한 명료함보다는 낭만주의 시대의 로맨틱한 발라드, 돈 주양, 달밤의 납치극, 출사다리, 아버지의 저주, 어머니의 탄식과 분개한 이웃의 소란스러움이 더 매력적이다. 어떤 제약 없이 자연스럽게 오가는 감정이 아니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손익을 염두에 두 거래에 불과한 것이다.

## 적대적이 원론을 극복해야 완성된다

구원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발을 내디딜 때 찾아온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넓은 전통과 구시대의 관행을 던져버리고 전진하는 것이다. 여성 해방 운동은 이런 방향의 첫 걸음을 내딛은 것에 불과하다. 여성 해방 운동은 그 두 번째 걸음을 내딛기 위해 해충 분한 힘을 비축해야 할 것이다. 동등한 시민 투표권 행사는 바람직한 요구 사항이지만, 진정한 해방이 시작되는 곳은 투표장이나 법정이 아니다. 다른 아닌 여성의 영혼이다. 역사의 말한다. 피지배자들이 지배자에게서 진정으로 해방된 것은, 어떤 시대에나 그들 자신의 노력에 의한 것이었음을. 자유는 스스로 ‘자유로워질’ 능력이 있을 때 주어진다는 교훈을 새길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내부 개혁, 곧 편견과 전통, 관습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한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요구는 물론 정당한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고 사랑 받을 권리다. 부분적인 여성 해방이 여성의 진정하고 완전한 해방이 되려면, 여성으로서 사랑 받고,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것이 노예가 되고 종속되는 것이라는 우스꽝스러운 공식을 버려야 한다. 여성은 남녀의 원론이란 불합리한 개념을 버려야 한다. 남성과 여성이 적대하는 두 개의 세상을 형성한다는 이 원론적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편협함은 분리를 낳지만, 관대함은 화합으로 이끈다. 좀더 너그럽고 관대해지자. 여성과 남성은 정복자와 피정복자가 아니다.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무한한 헌신이다. 헌신은 스스로를 한 층 풍부하게 하고 확신을 주며,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끈다. 이런 태도만이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고 여성 운동의 비극적인 결과를 무한한 기쁨으로 승화 시킬 것이다.

싼남자와여자, 모든사람들의사랑과헌신을말이다. 현대여성과남성의삶에서, 비극은인간관계에관한이런편협한개념에서비롯된다.

## 향유하는만큼만자유롭다

여성들은종종풍부한지성과아름다움을갖출것을강요받고는한다. 현대여성들은이런속성이자신의존재를온전히드러내는데걸림돌이된다고생각한다. ‘죽음이갈라놓을때까지’라는고대성경속의결혼문구가여성에대한남자의주권, 즉 남자의변덕과명령에대한여성의절대적복종, 여성의완전한의존을함축하는장치라는사실이알려진지한세기도더지났다. 기존의부부관계가여성을남자의종으로, 출산의도구로전락시켰다는사실은끊임없이그리고명백하게증명되어왔다. 그러나우리는해방된여성들중상당수가여성의본성을훼손하고구속하는도덕적·사회적편견때문에고립된독신생활을견디는것보다, 많은단점에도불구하고결혼을선호하는것을봐왔다.

여성들은이사실을명심하자. 여성의자유는여성스스로해방되는능력을향유할수있는곳까지확대된다는사실말이다.

수많은진보적여성들이이런모순에부딪히는것은해방이의미하는바를제대로이해하지못하기때문이다. 진보적여성들은스스로외부의압박에서자유로워짐으로써모든것을성취했다고생각한다. 그러나윤리·사회적관습, 개인의삶과성장에훨씬위험한내부적압박은그대로방치했다. 이런것들은과거여성들의머리와마음에새겨진것만큼이나, 가장활동적인여성해방운동가들의머리와마음에도똑같이큰자리를차지했다. 이런내부의압제자들이여론형태로나타나든, 혹은엄마·숙모·이웃·아빠·고용주혹은징계위원회가말하는형태로나타나든상관없다.

이런모든부조리에저항하고, 감시자에게대항하고자기영역에서굳건히설수있어야해방된여성이라할수있다. 또한삶의가장큰선물인사랑할자유, 여성고유의능력인출산의자유를거리낌없이주장할수있어야해방된여성이라할수있다.

한현대소설가는해방된여성의이상형을자신의책에묘사했다. ‘그이상적인해방여성’은젊은여의사로, 가난한이웃들에게무료로약을제공하는자애로운이웃이자녀들에게는지혜로운어머니다. 소박하고실용적인옷차림을즐기는그녀는지인인젊은남성에게박테리아와바이러스를전멸시키는방법에대해설명한다. 마루와벽을돌로만들고, 양탄자와커튼을없애면가능하다는것이다. 그녀의해박한지식에, 남성은처음에는위축되지만차츰호감을느끼게된다. 두젊은남녀는서로호감을느끼지만, 시종일관담백한관계를유지한다. 로맨스라고는없는두사람의관계는선을넘지않는다.

[엠마골드만이 1906년에쓴이글은아나키스트인 E. 아르망의번역으로 2003년잡지 〈아곤 Agone〉에게재됐으며, 〈르몽드디플로마티크〉의자매지인격월간 〈마니에르드부아 Manière de voir〉 2011년 8·9월호에재수록됐다.]

먼저나는내가주장하려는바를말하고싶다. 모든정치·경제이론, 계급과인종간차이, 여성의권리와남성의권리간인위적경계가없는, 오히려서로다른점들이잘어울려, 또하나의완전한개체를완성하는지점이있다는사실을말이다.

평화와조화를위해반드시개인간의피상적균등화가필요한것은아니다. 남녀간, 개인간평화와조화를이루기위해개인간특성을제거할필요는없다는것이다. 현재우리가고찰하고해결해야할문제는자신의정체성을지키면서타인과화합하는것, 타인과깊은교류를하면서도자신의고유한특성을유지하는것이다. 이는대중과개인, 진정한민주주의와진정한개인주의, 그리고남성과여성이그어떤적대감이나갈등없이만날수있는방법에관한것이다.

관건은용서가아니라, 이해다. 마담스타엘이자주인용하는“모든것을이해하는것은모든것을용서하는것이다”라는말은내게감동을주지못했다. 타인을용서하는것은바리사이 Pharisees(기원전 1세기 ~ 기원후 1세기, 극도로엄격한율법해석과실천을내세우던학파또는그학파에속한사람들-역자주)의권위같은우월한개념을연상시킨다. 이해만으로도충분하다. 이는여성해방에대한내견해와모든여성에대한여성해방의영향을부분적으로구현하는말이다.

## 관건은균등화가아닌, 평화와조화

여성해방은여성에게, 진실로인간적인존재가될가능성을부여한다. 자기확인과활동에의요구는, 가장완전한자기자신의표현으로귀결될것이다. 따라서우리는보다큰자유로가는길목에잔재하는굴종의시대와노예제도의흔적을제거해야한다.

이는여성해방운동의본래목적이었다. 그러나현재까지의결과를보면, 이목적이오히려여성을고립시키고여성에게서행복을앗아갔다. 외적해방은, 현대의여성을기하학적형태로길러진화초처럼인공적인존재로만들어버렸다. 소위‘지성인’들중에이런‘인공적여성’이많다.

“여성에게자유와평등을!”고상하고용감한현대의지성인들이이말을처음던졌을때, 그때느꼈던희망과열망은헝언할수없다. 여성스스로가운명을개척해가는새로운세계에, 태양이찬란한빛을발하며영광스럽게떠오를것이다. 이는편견과무지로부패한세계에맞서기위해모든위험을무릅쓰는선각자들의열정, 용기, 인내, 끊임없는노력에부합한목적이다. 그러나여성노동자들은가정에서의편견

과구속을, 공장에서의 편견과 구속으로 맞바꿨을 뿐이다. 그 결과, 여성들은 과연 어떤 독립을 쟁취했는가?

내희망은 해방을 지향한다. 그러나 현재 여성 해방은 완전히 실패한 상태다. 여성이 진실로 해방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해방으로부터 해방돼야 한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이것이야말로 적확한 표현이다. 여성 해방을 통해 여성은 무엇을 얻었는가? 일부 국가에서의 참정권이다. 이 결과로 수많은 여성 투표 주창자들이 예언했듯, 정치권이 정화됐는가? 답은 물론 'No'다. 지금이야말로, 건전하고 명확한 사고력을 가진 이들이 보수적인 어투로 '정치계의 부패'에 대해 말하는 것을 중단해야 할 때다. 정치계의 부패는 다양한 정치권 인사의 윤리, 또는 도덕적 해이와는 무관하다. 부패의 원인은 순전히 물질적인 것이다. 정치는 '주는 행복보다 취하는 행복이 더 크다', '헐값으로 사서 비싸게 되팔아라', '더러운 손이다른 손을 깨끗하게 한다' 등의 원칙이 통하는 상업적 논리를 반영한다.

## 행복의 근원을 빼앗아간 해방?

여성 해방은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경제적 위치를 부여했다. 여성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과거와 현재의 교육은 여성에게 경쟁력을 부여하지 못했다. 따라서 여성은 시장에서 원하는 수준에도 달하기 위해, 매번 모든 에너지를 쓸어야만 한다.

게다가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도 달한 여성은 소수에 불과하다. 여교사, 여의사, 여성 건축가, 여성 엔지니어들이 동일 직종의 남성들과 동일한 수준의 신뢰도, 보수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이런 '가짜 평등'에도 달한 여성들은 대부분 육체적·정신적 희생을 담보로 했다. 대다수의 여성 노동자들에게 변화라고는, 그들이 편견과 구속을 받는 장소가 가정에서 공장, 상점, 사무실 등으로 바뀐 것而已이다. 그 결과, 여성들은 과연 독립을 쟁취했는가? 많은 여성들이 고된 일과를 마친 후 따뜻하게 반겨줄 이 한 명 없는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를 진실로 영광스러운 독립이라고 할 수 있는가?

수백 명의 젊은 여성들이 계산기와 재봉틀, 타자기로 '독립'을 이어가는데 지친 나머지, 결혼을 돌파구로 여기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는 중산층의 젊은 여성들이 부모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결혼을 선택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간신히 밥벌이를 하는 수준의 독립 생활은 그다지 행복하지도, 이상적이지도 않다. 즉 큰 목소리로 여성에게 독립 생활에의 환상을 심어주는 것은, 사랑과 모성이라는 이성의 본능을 억누르는 방편, 그것도 별반 효과적이지 못한 방법에 불과하다.

여성 독립과 여성 해방에 대한 편협한 기준의 개념들, 여성이 아닌 사회적 지위가 남성과의 사랑을 가로막게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사랑이 여성에게서 자유와 독립을 앗아갈 수 있다는 두려움, 사랑과 모성의 기쁨이 일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불

안등의 감정은 해방된 현대 여성에게 독신을 강요한다. 그리고 그렇게, 삶은 지나간다.

## 사랑을 두려워 할 때 해방은 없다

여성 해방은 연인이나 아내로서의 여성, 어머니로서의 여성의 감정을 마음껏 표출하기에는 너무나 좁은 비전을 제시한다. 이는 여성 해방을 추구하는 여성들 대부분이 느끼는 바다. 경제적으로 독립한 현대 여성은 지식적인 측면에서 이전 세대의 여성들 앞서간다. 그러나 이로 인해 본질적인 삶의 결핍을 느낀다. 다른 아닌 사랑의 결핍을 느끼는 것이다. 인간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유일한 것은 사랑이다. 그러나 많은 여성들이 사랑의 결핍으로 인해, 일하는 로봇이 돼버렸다. 기존 제도를 파괴하고, 보다 진보적인 제도로 대체하려는 운동에는 지지자들이 있다. 지지자들은 이론적으로는 근본적인 사상을 옹호 하지만, 일상에서는 평범한 속물에 불과하다. 그들은 존경을 갈구할 뿐이다. 그들은 "소유는 도둑질"이라고 주장하면서, 누가 자신의 머리핀 하나만 가져가도 분개한다. 그리고는 자신이 '사회주의자', 나아가 '아나키스트'라고 주장한다.

## 여성의 자유와 남성의 자유, 깊은 연관성

여성 해방 운동가들 중에도 이런 속물들이 있다. 신출내기 기자와 삼류 문인들은 해방된 여성의 모습을 왜곡시켰다. 예를 들어 조르주 상드 같은 여성 해방 운동가들이 마치 도덕성을 결여한 것처럼 묘사한 것이다. 따라서, 여성 해방은 반 사회적인 삶, 부도덕하고 방탕한 삶, 사치스러운 삶과 동의어가 돼버렸다.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여성들은 이에 분노 한다. 그리고 이런 여성 해방 운동가들에 대한 인식이 왜곡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에너지를 쓰는다. 여성은 남성의 속박 아래서 신음하던 동안, 여성은 선량할 수도 순수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여성은 자유와 독립을 쟁취했을 때 얼마나 선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성의 영향력이 사회의 모든 기관을 정화하는 효과가 있는지 여성 해방 운동가들은 증명하려 했다.

진정으로 해방으로 가는 위대한 노정에서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여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여성들은 청교도적이고 위선적인 관점으로 남성을 방해자로 여기거나,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자신의 사생활에서 추방해버렸다. 남성을 아이의 아버지로 용인한 것은, 아이 아버지가 없으면 살기 어려운 현상 때문이었다. 다행히 엄격한 청교도적 시선도 모성이라는 선천적 열망을 없앨 수는 없었다. 그러나 여성의 자유는 남성의 자유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해방된 많은 여성 동지들은 자유 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사랑과 헌신을 원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듯하다. 아이 자신을 둘러